

가산 에서 보내온 새해 이야기



2007년 새해를 맞아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가산면지부 명예기자들의 새해설계를 들어본다.

물론 새해 설계가 예년 에세이와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내용과 맞벌이 부부의 양육문제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내용들이다.

새해에는 서로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다른 지부의 새해 설계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정해년은 우리가족의 밝은 희망’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이사

가족과 다함께 TV를 보면서 2006년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한해를 마무리했다. 지난 한 해에는 목장일과 아파트 살림을 병행하고,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비닐하우스에 대파와 시금치 농사를 지으며 무더운 여름 날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점심 식사도 해드리며, 저녁에는 학교로 향해 달려가 강의시간에 졸음을 참으려고 애를 쓰며 수업을 듣지만 꾸벅꾸벅 졸다 깜짝 놀라 교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쑥스럽고 죄송스럽던지... 핍겨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돌아서면 기억이 나질 않아 어른들 말씀처럼 공부도 시기가 있는 것을 실감했다.

1학년 종강을 맞이해 단담대회를 강연에 있는 편선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마니포 행사도 하며 모두 둘러앉아 난로 위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커피 향에 취해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침을 맞이했다.

시원한 북어 해장국으로 맛있게 아침을 먹고 구구족포로 산책을 하면서 나에게 이런 소중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남편, 조동학교 5학년이 되는 막내 응주,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새해에도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소망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바라며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한다.

내 친구



이명영 주부명예기자

정해년 새해가 밝았다. 밝아오는 새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이제 중년이 되어 가는 나이가 그런가 보다. 나이가 먹어 갈수록 아이들이 커갈수록 친구가 그리다.

과연 내게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될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달려와 줄 아내, 내가 그 친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만나 제쳐두고 달려나가 줄 수 있을까?

내게는 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마음 따뜻한 인정 넘치는 나는 그런 그 친구가 부럽고, 사랑스럽다. 언제나 씩씩하고 소탈한 친구가 사랑스럽다.

남을 배려 할 줄 아는 남의 상처나 외로움을 보듬을 줄 아는 그 친구가 사랑스럽다. 남을 도울 줄 아는 그 친구가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런 친구가 옆에 있는 한 내 삶은 따뜻한 것 같다.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문제



오은영 주부명예기자

점점 고령화시대가 되어갈수록 자녀 출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나 자신 또한 첫째 아이를 낳아 100일 때부터 낯선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기게 되었는데, 아직도 3살이 되어 가는 우리 아이들은 하루 종일 어느 시설에 맡겨져 오 후 7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온다.

오늘날 여성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남편 월급으로는 한달 한달 생활비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말이다.

이토록 사회가 변해갈수록 우리 여성들의 역할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직장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남성과 똑같이 직장 일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도 여성의 일은 끝없이 집안 살림과 아이양육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요즘 남편들은 그래도 많이 가사 일을 도와주지만 아직도 아이 돌봄과 부엌일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

예전에는 부인을 고르는 기준이 살림만 잘하고 아이양육만 잘하는 현모양처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전문직 여성을 선호하는 시대가 왔다.

어린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데 드는 돈만 한 달에 30~40만원에다가 기저귀와 물티슈, 분유는 별도로 데야 하는 실정이다.

그럼 둘째까지 낳아서 두 명 맡기는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도대체 얼마라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주부는 그걸 바에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둘을 집에서 키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라며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들을 보게 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둘째와 셋째를 낳았을 때 정부에서 돈이 나오지만 그건 태어났을 때 뿐 그 다음부터 드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들의 몫이다.

그런 현실이라면 과연 누가 둘째를 낳고 싶을까? 오늘도 둘째 출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셋째 낳을 수 없는 우리의 양육문제 언제나 해결 될 수 있을까?

선진국처럼 회사마다 탁아시설이 있어서 주부가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무료로 지원해 주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다면 조금은 출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언젠가는 이런 살기좋은 날이 오겠지만 그 날이 하루 속히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글을 읽고 육하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맞벌이 여성으로서 작은 소망을 가진다.

눈오는 아침에



용경자 주부명예기자

오늘은 들들 긁어 많이 아침부터 서늘했다. 밤사이 눈이 내려 포근한 잠을 잤다. 문을 열고 나와보니 눈은 계속 내리고 길은 눈으로 뒤덮여 있다.

우리는 지난주에 4륜 기어를 수리하고 ABS도 점검해서 "이젠 눈이 와도 걱정 없어"하고 내심 버르던 참이었다. 신랑은 직업 운전 경력이 있어 이런 날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특히 승합차를 운전하다 길에서 한나절씩 보내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꼭 4륜구동 질차를 사야겠다고 했다.

바로 그 날이 왔다. 약간의 언덕만 있어도 승용차나 화물차는 끄덕거리며 헛발질을 했다. 신랑은 으스스하며 언덕길도 빙판길로 거뜬히 달렸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여보, 다른 사람 합승하러하는데 너무 좋아하지마!" 했더니 혼자 히죽 히죽 웃고 있다.

그런데 우리 차 바로 앞에서 아줌마들을 잔뜩 싣고 출근 시키는 듯 달리던 승합차가 길을 막았다. 차의 성능이 계속 내리는 눈 속에 언덕 빙판 길을 넘어갈 힘이 부족했던 것이다. 기사사저씨는 당황스러워 했다. 고안해서 즐고 있던 아줌마들도 모두 깨어서 걱정을 하고 계셨다.

먹고살기 힘들게 하려는 도와주지 않는가? 하고 내리는 눈을 원망하는 듯 보였다. 신랑은 그 차를 제치고 앞섰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승합차, 화물차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둘러서 다른 골목길을 가도 마찬가지로였다. 한참을 이길 저길을 헤매더니 신랑이 하는 말 "에이 차가 좋아도 별수 없네" 그랬다.

아무리 차가 좋은 들 길이 막혔는데 무슨 소용 있나? 승합차 기사분하고 아줌마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아줌마 아저씨, 우리도 출근 못하고 바로 앞에 있어요. 결코 아줌마들보다 빨리 가지 못하네요."라고.

부자라고 해서 혼자선 행복할 순 없다. 부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를 부자라고 부러워 해줄 사람과 그 부를 함께 할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연인 친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부자도 진정한 행복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오늘 출근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 평소엔 20분 거던데..... 혼자서 좋아라 성은 좋은 차를 가지고 달린다면들 결코 혼자서 일할 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사회였다. 모두가 함께 살사는 사회란 빈부의 격차가 없는 사회가 아닐까? 나도 부자외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혀 보기 위해 신랑과 함께 열심히 일해야겠다.

나의 꿈을 향해



오은영 주부명예기자

유난히 손재주가 많은 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다. 그 중에 피아노는 나의 직업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길이고 꿈 인줄 알고 살았다. 하지만 주위의 부러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하지 못 하고, 부황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의 행복과 꿈은 무엇일까? 고민도 잠시 현실 앞에서 더 이상의 기회도 시간도 없어 보였다.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풍선아트를 알게 되었다는 데 "바로 이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위에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고, 나 자신도 자신이 없었다. 또 쉽게 질리고 포기할까봐... 많은 고민 끝에 이번이 마지막인 각오로 시작하게 되었다.

많은 배울수록 재미있고 행복하고 머릿속에는 운통 풍선 생각뿐이고, 마치 연인을 시켜듯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 감정이란 같이나 말로 표현하지 못 할 정도였다.

2급 자격증을 따고, 무언가 더 배우고 싶은 열망에 서울까지 다니며 1급 공부를 하던 중 학원 게시판에 한국 별문쟁 개최 포스터가 눈에 확 들어왔다.

참여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경험이 없는 내가 수상 할 것이라는 상상은 감히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배우는 맘으로 참석에 의미를 두고 2가지 부문에 접수했다.

그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연습을 했다. 대회시간은 장장 16시간. 작업시간동안은 힘들지도 않고 그 때 행복하고, 즐겁기만 했다.

작품은 회전산타... 도터를 달아 돌아가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대형 조형물과 개인작품이었다. 회전산타가 돌아 갈 때에 그 감격은 지금도 있을 수가 없고, 이 작품들이 입상했을 때에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격이었다.



때에 그 감격은 지금도 있을 수가 없고, 이 작품들이 입상했을 때에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격이었다.

한국에서 제일 큰 풍선대회에서 내가 입상을 하더니 나 자신도 놀라운 일이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희미했던 나의 꿈이 뚜렷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할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은 풍선에서 고무뽀뽀가 난다고 하지만 난 막 풀려낸 구수한 송넬뽀뽀가 나는 건 왜일까요?

오늘도 풍선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겠다는 나의 꿈을 향해 달려보려한다. 오은경 화이팅!

열심히 사는 이유



김은숙 주부명예기자

문득 잠에서 깨어 창밖을 보니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 그것도 모자라 여울여울 흘러내리고 있다. 가슴 따뜻한 일도 많았던 가슴 시원 일도 많았던 2006년이 지난날이 되어 추억속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버렸다.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앞서지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해서?

네 살밭이 딸에 한 번 물어본다. 하지만 답을 얻기 전에 딸아이는 엄마!하며 내 품에 안긴다. 안겨서 온몸을 엄마의 품속에 감싸고 있다. 그리고 문득 알았다.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 포근한 엄마의 품을 항상 내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딸아이를 꼬옥 끌어안고 영영 이를 두드려 준다. 아! 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 열심히 살다 보면 가슴 따뜻한 일도 나와 함께하겠지. 정해년 황금돼지의 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해 보다도 올해는 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준비 없이 찾아 온 딸의 사춘기



김미숙 주부명예기자

나에게 연년생인 두 딸이 있다. 하지만 성격이 너무 다른 아이들. 어느 날 딸이 없어진 큰딸. 짜증도 많이 들고 반항심을 보이기도 했다. 원래 웃을 많고 배려심도 많았던 아이가 갑자기 변해서 무척 혼란스러웠다.

나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하며 무조 건 야단만 쳤었다. 뒤늦게 사춘기란 걸 알았을 땐 나도 무척 당황스러웠다. 나도 겪어 온 사춘기지만 사춘기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갈림길이다. 10대에 사춘기를 접하는 아이들은 부모와의 서로 다른 의견차 때문에 말문을 닫아 버리거나, 반항심을 보이게 된다.

아이들이 빨리 조숙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신체 발육이 예전 보다 빨라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초경과 가슴 발육시기가 앞당겨 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때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가까운 조언자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힘들지만 이때를 통해 아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알아 내는 게 바로 우리 부모들이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다.

내 딸의 사춘기는 이제 시작이다. 그 기간은 아이에 따라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큰아이는 나에게 또 다른 경험이고 공부이자, 숙제인 것이다.

아이와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 지기도 하고, 또 경험자로서 의도적으로 부모 자신의 생각보다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 주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청소년 전문의 말에 의하면 "애들이 애를 갖지 않다는 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때 아이들은 비밀이 많아지고 성에 눈을 뜨면서 또래 친구들과 잘맞은 성 지식을 알아가게 된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무작정 감추려 하기보다는 궁금해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간혹 어떤 부모들은 크면 다 알게 된다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질문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정말 바보 같은 것이다. 아이가 원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들을 묵인하는 부모는 아이와 가까워질 기회마저도 잃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먼저 엄마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 줄 줄도 아 는 엄마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지금처럼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엄마와의 사이가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풍족하고 여유로운 가정환경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내 아이에게는 친구 같은 엄마가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지혜로운 엄마가 특별한 아이를 만든다. 엄마가 열리면 아이도 열리게 되어 있다.

싱가포르여행기



원혜선 주부명예기자

45년만에 처음 출발하는 외국여행에 들뜬 마음으로 긴장이 되고 설레는 기분 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7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공항을 나서니 전혀 다른 세상 이었다. 너무도 정리가 잘 되어있고 깨끗 하고 나무 하나 하나가 너무나 잘 심어져 있었다. 길에 전봇대 하나 보이지 않고 눈 이 부시도록 건물이 웅장하고 볼품 있게 잘 지어져 있다.

처음 간 곳은 식물원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들이 많았다.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음식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는 김치와 똑같은 반찬이 나왔다. 머니깐 이곳에서도 우리나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반가웠다.

하루를 보내고 말레이시아로 향했다. 그런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날 인도네시아로 배를 타고 출발했다.

인도네시아 원주민 마을로 들어갔다. 처음 만나는 풍경에 놀랐다. 판자 집에서 쓰러져진 오두막집이었다. 통풍도 안되고 습 해서 냄새가 심했다.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이 퐁 퐁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구급상자 없애고 얼굴이 나를 맞아 주어 반갑기도 했다. 이번 외국여행을 통해 여러 가지 배우고 느낀 바가 많았다.

보물찾기



노혜선 주부명예기자단이사

가산초등학교 겨울 방학을 맞아 배드민턴 특기적성을 시작했다. 열 명의 아이들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 동안 나에게 강습을 받는다.

아색하고 제멋대로 모습에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가지는 모습에 뿌듯함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처음 특기적성 강사 제의를 받았을 때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고 민도 되어 밤잠까지 설쳤다. 막상 수업에 들어가 내가 배웠던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라켓 잡는 방법부터, 공을 치는 자세, 발을 딛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쳤다.

매번 시간이 부족하여 그냥 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내 강습으로는 부족한 아이들도 있어 안타깝기도 했다. 또, 배드민턴이 너무 좋다는 아이도 있다.

그렇게 일년을 보내고 나니 이전 제법 나도, 아이들도 조금 쏘이 난다. 누가 알았더라! 내게 이런 숨어 있는 재주가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보물 아닐까요. 2007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숨어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옥석 주부명예기자단이사

안녕하십니까? 황금 돼지 해 꿈은 잘 꾸셨는지요? 2007년 뭔가 새로운 것이 확 달라져 마음을 확 트이게 할 것만 같습니다. 2007년 1월7일 일요일 시아버님이 생신을 앞당겨 동내 잔치를 했습니다. 가산면 우금2리 포도도 유명도 하지만 정겨운 유래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금리 원촌 마을에 정겨운 유래는 어른들의 생신이 돌아오면 아침 7시 정도 동네 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원촌에 89년도에 시집왔는데 처음으로 아버지 생신을 맞았 습니다. 식사하러 오시라고 전화 드렸더니 동내 어른들께서 쾌히 오셔서 축하를 드리며 미역국 떡 잡채 나를 생때쯤 김 집비 등등을 나누시고 덕담도 하십니다.

내년에는 포도 농사를 더욱더 잘 지어야 할텐데 하면서 격려와 계획과 조언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원촌의 따뜻한 마음(소주 3병 음료수 한 박스 담배 한 보 루 등등) 원촌의 정겹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우금2리 원촌마을입니다. 저희 아버지(원유문)과 어머니(임정순)은 무엇 을 하고자 하면 NO가 없습니다. 두분께서는 존경과 사랑이 넘치시는 인교부부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성취하시고 행복하세요. 포천시민을 비롯하여 포천신문을 애독하시는 모든 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2007년 한 해가 되십시오.

비전(vision)



황은남 주부명예기자

새로운 세상은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비전은 현실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보다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비전이 있는 자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능력으로 현재의 고 난을 역전시킬 수가 있다.

비전은 상수리 열매에서 푸르고 거대한 게 뺀 상수리나무를 보는 것이며 먼지처럼 미미한 겨자씨 에서 향기로운 꽃이 피고 무성한 나무에 많은 종류의 새들이 깃들인 나무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비전은 승리의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고 절망의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 삶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구별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하겠지만, 만일 큰 돌맹이와 자갈과 모래와 물을 정해진 크기의 그릇에 담으려 한다면 큰 돌맹이, 자갈, 모래, 물의 순서로 담지 않고 거꾸로 물, 모래, 자갈, 큰 돌맹이 순으로 담으면 절대로 그 한정된 그릇에 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일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비전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품은 비전이 이기적이 아 니고 이웃에 공헌 할 수 있는 비전을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의 그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 웃, 포천, 우리나라, 세계를 위하는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2007년 새해에는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서 현실을 극복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